

세 번째 이야기 「동행」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아이스 브레이크(Ice Break)

1. 이번 주 주일예배를 드리면서 감동 받았거나 기억나는 일들을 나누어 봅시다.
2. 만일 당신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순서대로 5명의 이름을 적어봅시다.



말 · 씬 · 속 · 으 · 로

Into the Word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축 처진 어깨, 무거운 발걸음, 그리고 어두운 눈빛... 마치 세상을 다 산 듯 내쉬는 한숨은 아직 먼 어둠까지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도착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반가운 가족을 만날 기쁨보다 마음에 남겨진 절망을 지울 일이 걱정입니다.

고향을 떠나던 시간이 기억납니다. 기쁨에 압도되어 그날, 가족을 뒤에 두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그토록 갈망하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한 마디로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구원의 능력이 넘쳐났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기쁜 소식이 들었고, 포로 된 자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었으며, 억눌린 자들의 울무가 벗겨졌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지자,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고 나의 꿈을 이루어줄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날,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구원자 예수를 찬양했습니다. 그분은 추악한 이기심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케 하셨습니다. 굵은 것들을 바로 잡으셨고, 상한 갈대와 같은 영혼들을 일으켰습니다. 위선자처럼 느껴지던 종교지도자들도 능력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거야. 우리가 갈망하던 구원의 날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습니다. 가슴 속에 희망이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던 그분이, 모든 것을 걸었던 그분이 죄인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히 처형당하셨습니다. 머릿속에서 맴도는 군중들의 조롱소리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면 스스로를 구원해 보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정작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다시 우리를 압도해갑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다가온 좌절감을 낯설게 느끼는 나약한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갑니다. 길바닥에 붙은 듯 무거운 걸음을 재촉하며 엠마오로 향할 뿐입니다.

Q1)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길을 동행하기를 청하며 말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까? 계속 말씀을 주고받으시던데요.” 글로바는 한심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던 예수님이 사흘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씀과 행동에 능하신 선지자셨어요.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음해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처형당하셨어요. 더욱 속상한 것은 시신마저 없어졌다는 겁니다. 몇몇 처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가서 확인한 것은 빈 무덤뿐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글로바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는 소리치며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어리석고 더디 믿는 사람들이군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성경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가르쳐주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며 걷던 길은 어느새 엠마오에 도착하였습니다. 길을 더 가야한다는 그분의 말씀에 두 제자들을 한사코 붙들며 간청하였습니다. “이미 저녁때가 넘었어요. 날까지 어두워져가니 저희와 함께 이곳에서 하루를 묵고 가십시오.”

글로바의 끈질긴 요청에 그는 함께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한 후 한 덩이씩 떼어 나누어주었습니다. 순간 제자들의 마음을 깨우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주님이시다.” 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마지막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며 함께 떡을 떼시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 것입니다. 비로소 제자들의 어두워진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라져버린 후였습니다.

글로바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처참히 죽어간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제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잠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Q2)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누가복음 24:33~34)

Q3)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좌절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누가복음 24:15)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32)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나” (누가복음 24:15)

Q4)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 났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32)

Q5)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누가복음 24:33~34)

저는 고등학교 시절 미션스쿨을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대 중반에 친한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신앙생활을 시작 하였고 주일학교 교사, 청년부 회장, 장애인 봉사, 단기선교 등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했던 저는 사소한 일에 시험에 들었고 그렇게 열심 이었던 교회생활까지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망감을 해결하지 못했기에 교회에 열심인 사람을 볼때마다 ‘나도 한때는 저랬다. 얼마가나 보자’며 마음으로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

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인생은 무척 행복했습니다. 30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출발한 결혼 생활은 꿀처럼 달콤하였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로 첫 아들을 얻었고 남편 사업도 번창하여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행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던 행복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둘째, 딸아이를 임신하고 10달을 조심하며 지냈는데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9개월이 지나도 발육이 부진하여 검사를 하였는데 딸아이의 뇌에 종양이 생겼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사업이 부도를 맞아 한순간에 빚더미에 올랐고 결국 집을 팔고 쫓기다시피 의정부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마음을 지배하였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바닥의 상황 속에서 결국 찾을 수 있는 의지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제 딸의 생명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방교회로 인도받았습니다. 한번 두 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입술이 트이고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으로 시작한 눈물은 기도로 변하였고, 하나님께 쏟아놓은 기도는 다시 기쁨의 눈물로 변하였습니다. 주일예배 가는 시간이 기쁨이었고, 매주 사모님과 함께 배우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일처럼 저희 가정을 도와주시는 목원들과 함께 하는 목장모임은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살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저의 손을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세상의 낙을 누리고 있을 때도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낙에 빠져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를 남편과 딸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시편 46:1).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오늘도 제 딸과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늘 저와 함께 하소서!

[한소망교우]

Q6)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열방교우의 고백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혹과 시험 앞에 때때로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며 똑같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찾아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4)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2)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46~47)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5)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말하도록 한다. 말씀묵상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한다. 이 둘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데 필수적이다.” (릭 워렌)

“그대가 오늘 크리스천인 것은 어떤 이가 당신을 도왔기 때문이다. 자, 이제는 당신이 도울 차례다.” (워렌 위어스비)



오 · 병 · 이 · 어

Sharing your mind

천 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루어가시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과 유혹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앞에 좌절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도 당신을 돌보시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삶의 어려움 앞에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당신의 삶 가운데 초대하십시오. 주님은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원하신다면 아래의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 나님 아버지, 주님은 제 삶의 주인이시며 참된 인도자이십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진심으로 초대하고 환영합니다. 제 안에 오셔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매일 묵상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형제자매를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능력을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